

## ODA로 지원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전략

-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를 활용한 지원 정책을 강화
-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ODA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하며, 개도국이나 일본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# □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ODA 활용

- 일본 정부는 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(ODA)를 활용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,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
  - 폐기물을 재료로 한 퇴비제조기, 수처리장치, 휠체어와 같은 환경·복지 등 8개 분야의 제품을 동남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지역으로 판로 확장
  - 시범사업으로 1~2년간은 현지 정부기관 등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수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전략
- 2013년도 ODA예산 20억 엔을 사용하여 샘플을 만드는 설비와 기자재의 구입, 현지에서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
  - 외무성과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가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, 경제산업성·중소기업청·JETRO·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이 이에 협력
- 아베 정부의 중요 시책인 ‘지방 중시·지역 재생’을 통한 경제성장 및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DA로 중소기업을 지원
  - 일본국내의 부진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술을 개도국의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일본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

## □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

-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제품 판매를 위해 정부가 ODA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, 해외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인맥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판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
- 기존의 ODA 안전들은 도로건설 등 인프라 정비가 중심이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내재
-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들도 ODA 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의 시즈를 조사하여 개도국의 민생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지원정책을 강화
- 지원정책의 목적은 일본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동남아, 아프리카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확보하는 것
-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수처리·공급시스템을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을 정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국가에 판매
- 상대국 정부기관에 위생적인 수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상자금협력이나 기술협력의 틀을 활용
- 생수 판매업체와 협력하면 민간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ODA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

< ODA로 수출을 지원하는 제품 사례 >

| 분야            | 제품   |
|---------------|--|
| 환경·에너지·폐기물 처리 |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제조기, 절전형 수력발전기, 환경배려형 화장실, 우량감시 시스템 |
| 물 정화·처리       | 태양광발전기 수처리 장치, 수질측정기, 정수기, 지하수 오염 정화제          |
| 직업훈련·산업육성     | 연삭반, 공작용기기, 작업공구, 자동조작기기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지            | 휠체어, 리허빌리테이션용품, 간병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            | 수리펌프, 수확용 기계, 정미기, IT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          |
| 의료보건          | X레이 진단장치, 치과기기, 백신 등 정온수송용기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            | 교재, 실험기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재·재해대책       | 재해방지장치, 가설용 조명기구, 재해구조용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|

-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이나 사업소에서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는 기계 등의 분야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
- 쓰레기처리장치는 논밭의 관개용 펌프 등 농기계와 일괄 판매도 가능
- 방재대책 분야는 모래·눈사태를 방지하는 장치 등을 계획

## □ 시사점

- 일본 정부가 OD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내수침체로 약화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
  -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 - 또한 ‘일본경제-중소기업-개도국’ 3자가 Win-Win-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
- 일본에 비해 ODA규모도 작고, KOICA에 의한 사회공헌활동 중심인 ODA사업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
  -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KSP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나, 신흥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BOP 비즈니스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

## 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8.13)